

정 론

백 두 대 지 가 태 동 한 다

삼지연군 꾸리기에 떨쳐나선 216사단 건설자들의 투쟁 정신과 위훈을 전하며

우리는 지금 백두대지에서 이 글을 쓴다. 들끓는 삼지연전역을 발목이 시도록 경기를 그 몇번, 걸음마다 강통과 흥분의 편속이어서 거창한 현실을 따라가며 끊을 달리기는 그 얼마였던가.

물론니 지금과 같이 백두대지에 그릴듯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출렁적 있었던가.

《가자 백두산으로, 만나자 삼지연에서!》, 누구나 이 말을 시대에처럼 외워며 사는 불같은 세월이다. 너도나도 앞을 더 나아서 삼지연으로 달려와 원신의 땅방울을 바쳐간다.

여기선 낫과 밤이 따로 없다.

데지에서 뒤집은 것은 뿐이어서 이 나라 인민은 태어난 낫은 서로 달리고 마음의 태만은 삼지연에 묻었다. 자기의 정신적 고향을 지키고 빛내어온다는 인민의 지향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한다. 인민의 그 힘은 핵폭탄과 강하고 인민의 그 기상은 천하를 뒤흔든다.

백두대지의 숲길이자 조선의 숨길이다. 조선이 지금 어느 걸로 가고 있는가. 조선인민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리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온 삼지연을 보라.

그 숨길은 다음 날 혁명의 한길을 끌까지 가고 가려는 억센 신념이다. 하늘땅이 뒤집히고 세상이 천만세 변한다 해도 우리

수원님은 행운과 재단들을 지고 올랐으니 이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이나 할 수는 있다.

그들이 결코 무쇠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가 있고 살이 있으며 피로 민족을 참자리를 그리워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 뚝루 문문은 도시에서부터 산길로 흘러든다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군, 남들이 흥내조차 낼수 없는 특색있는 군, 나의 얼굴로 전변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백두대지에서부터 동로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자!

하늘땅을 통해 뛰어온 그들의 영웅적 기상에 반들려 날마다. 시간마다 달라지는 삼지연이다.

날을 따라 기세를 듣는 216사단이다. 그 대오에 금이치는 신념과 의지를 대변해준 에 속보마다 불당이처럼 이글거리는 글발들은 또 얼마나 웅동적인가.

《폭풍처럼, 삼지연전역이!》

《백두청춘의 담력으로 지구를 움직이자!》

《백두대지에 서서부터 동로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자!》

하늘땅을 통해 뛰어온 그들의 영웅적 기상에 반들려 날마다. 시간마다 달라지는 삼지연이다.

보라, 우리 영웅한 216사단 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해 얼마나 눈부신 새 화복이 펼쳐지고 있는가.

해선에 삼지연까지 보기만 해도 가슴 벅찬 넓은 힐길이 빙어갔다. 1만여m의 용벽이며 산허리를 페질려나간 수많은 기차 굴들과 철다리로, 그야말로 백두의 궤도가 시원히 열렸다.

포태지구는 또 어떤가. 삼지연감자가 러생산봉장이 틀지 않은 물들을 실은 편차가 쟁쟁 달리는데 삼지연군의 판문답에 흘러진 물을 허락하는 편차였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렇듯 높으신 뜻을 밟들이 온몸을 꽂기로 불태워가는 우리의 216사단 건설자이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렇듯 높으신 뜻을 밟들이 온몸을 꽂기로 불태워가는 우리의 216사단 건설자이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실린 그 귀중한 손과 손들이었다.

우리 그들의 손은 정히 잡이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모두가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당의 옹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가는 선구자집단의 기수

동 평 양 금 속 건 구 공 장 지 배 인

동평양금속건구공장 지배인 김정현동무는 당의 응징속에 평양건설경제대(당시)를 졸업하고 로동자로부터 현장기사, 기사장을 거쳐 수도건설위원회의 손꼽히는 공장지배인으로 성장한 일군이다. 그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보다 훌륭히 꾸려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달고 지난 15년간 모든 면에서 뛰어들어온 풍성한 투쟁으로 보람차운 투쟁을 펼쳤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은 우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조선혁명의 중심장이며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 위대한 장군님의

평양은 우리 심장

동평양금속건구공장은 어디거나 흔들 수 있는 평범한 공장이 아니다. 하지만 공장을 돌아보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살아숨쉬는 공장, 제힘으로 비약하는 공장!

3m철단기와 절곡기, 7m절단기와 철곡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들어앉은 생산현장이며 각종 전기기계들이 출동해 세를 갖추고있는 차고의 정경은 볼수록 장관이다. 공장의 천지개벽을 두고 사람들은 친란을 금지 못할 때마다 김정현동무는 말한다.

『우리야 혁명의 수도에 사는 수도건설자들이 아닙니까.』

공장을 일떠세워도 수도에 위치한 단위답게, 제품을 하나 생산해도 수도를 빛내는데는 아버지하는 훌륭한 제품을!

비록 크지 않은 공장 지배인 이지만 자기가 맡은 단위를 어느 면에서나 평양시가 전국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당의 의도가 절실히 구현되는것이 바로 김정현동무의 의상이 포부이다.

김정현동무는 2003년에 지배인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일제방안을 당시 그의 사업수첩에는 불과 몇개의 작은 수작만이 올랐다고 한다. 말하자면 고난의 행군을 겪은 공장의 어려운 실태를 보여주는 수작였다.

이것은 결국 새로 공장을 일떠세우는 것과 거의 맞는 무게를 그의 어깨에 지워주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을 더욱 허민것은 만부하를 걸지 못하는 성격이 풍靡세를 일으켰던 공정들, 미달된 계획수행정형과 생산건물의 뒤틀어진 환경으로 보다 바로 공장이 10여년전 강창과 살립집출입문들을 잘 만

불후의 고전적작자『수도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빛내여 01자』 발표 60돐이 되는 올해 우리 당은 수도건설부문에서 처음으로 김정현동무에게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값높은 영예를 안겨주었다.

한 평범한 지배인에게 베풀어준 이 하늘같은 사랑에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책임적인 위치에서 서있는 사람들이 다름아닌 우리 일군들이 이는 크나큰 믿음이 빛발치고 있다.

고결한 충정과 헌신으로 빛나는 김정현동무의 삶은 새로운 평양성,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이 금속화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과연 우리 일군들의 심장은 어떻게 고동쳐야 하며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고장에 맞게 공장을 해마다. 필요하다면 달마다 자기의 능력을 간신히나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하나의 결론, 한발자국의 걸음을 꼼꼼히 배운다. 그의 배움과 잊어버렸다는 비상한 책임감을 봄처럼 안고 사는 수습의 참된 일군, 진짜에게 주인이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위원회가 자리를 잡은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는 책임이 다름아닌 자기 자신에게 지워져있다는 애국의 미움이 가슴속이 뿌려내렸던 그에 그후 김정현지배인은 끝내 기간에 세비와 훈전기재들을 윤활제로 일신하고 비약의 대 통로를 열어제기하였다.

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보도블록을 생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건설에 필요한 금속건구만 생산보장하자고 해도 아름차기 그지없는데 보도블록생산까지 동시에 떨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제기할 때에도 지배인은 긴장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는 짐이 클수록 혁명의 수도 평양이 더 환해지지 않겠소?』

새 제품개발의 초행길에서 지

배인이 흥금을 놀리고 한 이 말을 사람들은 결코 무심히 들을 수 없었다.

새 제품개발의 길은 결코 턱치

않았다. 하지만 김정현동무는 불

사신처럼 일어나 실내에 설계를

거듭하면서도 끝내 설계도를

로드로 끌끌내 설계도를

